

[2021-016]

| | | | | | |
|--|-----------------------|----------------------|------------------------|---|--|
|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 | Press Release | |  | |
| Request | For Immediate Release | | | Pages: 5 | |
| Date of Release | 3.29.2021 (월요일) | Contact | Tammy Cho 323-936-3014 | | |

특별기획전시
동서의 빛 너머

“동서의 빛 넘어”



KCCLA 40th Anniversary Special Exhibition

Beyond the Light of East and West



- ▶ 전시명: 특별기획전시 "동서의 빛 너머"
Special Exhibition "Beyond the Light of East and West"
- ▶ 전시기간: 2021.4.1(목) - 4.30(금)
- ▶ 장소: LA한국문화원 아트갤러리 / 5505 Wilshire Blvd. L.A., CA 90036
- ▶ 주최: LA한국문화원
- ▶ 초대작가: 김형대, 윤형근, 하종현, Larry Bell, Laddie John Dill,
Helen Pashgian(총 6명)
- ▶ 게스트 큐레이터: 이후정
- ▶ LA한국문화원 323-936-3014 전시담당 Tammy Cho or tammy@kccla.org

LA한국문화원(원장 박위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문을 닫았던 2층 아트 갤러리를 4월 1일부터 재개장하고, 2020년 LA 한국 문화원 개원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되었던 <특별기획전시 "동서의 빛 너머"> (Special Exhibition "Beyond the Light of East and West")를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LA 한국 문화원 2층 아트 갤러리에서 연장하여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특별 전시는 1960년대와 1970년대 무렵에 가장 혁신적인 장르를 개척해 온 한국과 미국의 여섯 명의 원로 작가들의 작품들을 통해 동서양의 예술가들의 연결고리와 유사점, 또는 차이점 등을 살펴보고 그들의 독특한 아이디어와 관행을 반영하기 위해 기획된 전시이다.

“동서의 빛 너머” 전시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거슬러 올라오는 회화, 조각, 설치 등 20여 점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중현, 윤형근, 김형대 등 한국의 원로작가 3인과 래리 벨(Larry Bell), 헬렌 파슈지안(Helen Pashgian), 래디 존 딜(Laddie John Dill) 등 미국 로스앤젤레스 출신 3인 원로작가 등 총 6명의 작가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이번 전시는 2021년 4월 30일까지 LA한국문화원 아트 갤러리에서, 개최되며 LA문화원은 온라인 사전예약제를 통해 관람시간 별 입장 인원을 제한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고 마스크 착용 점검 및 발열 검사 등 사전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LA한국문화원은 여전히 방문을 꺼리게 되는 관람객들을 위해 집에서도 생생하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버추얼 갤러리' (Virtual Gallery), 온라인 큐레이터 토크 등 온라인 콘텐츠도 문화원 웹사이트 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LA한국문화원 전시 담당 태미 조 323-936-3014로 연락하면 된다. /끝/

게스트 큐레이터 이후정

LA 아트쇼 한국미술 전시기획 디렉터이며, 갤러리 '아트 올 웨이즈' 관장이다. 지난 2012 이후로 LA 아트쇼를 통해 2018년에 개념미술과 팝 퍼포먼스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영국 작가 판데모니아의 "Flash Bulb"를 기획하여 KTLA 생방송 취재와 인터뷰로 화제거리가 되었고, 2015년 단색화 특별전 기획 및 2014년 이용백의 "천사 군인" 과 최정화의 "세기의 선물"을 포함한 "코리아 커백션" 특별전을 기획하여 LA Times 에도 게재되었다. 2011년 그녀는 게티 연구소에서 시작된 'Pacific Standard Time' 과 일관된, 로버트 라우센베르크, 찰스 화이트, 마츠미 카네미츠, 래리 벨, 에드 모세, 베티 사르, 래디 존 딜을 포함한, "솔리드 에즈 더 록: LA 아트 씬 1950- 1980년대"를 LA 아트코어에서 기획했다. 더불어, 그해에 한국 아트링크 갤러리에서 캘리포니아의 서정 추상의 거장인 에드 모세스 개인전, "유리를 통해 들여다보는 세상"을 기획하였다. 공공 미술기획의 하이라이트로서는 2015년 핑크 프로이드 밴드 컨서트 무대 조명과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건물 영상 파사드의 전임 작가인 마크 브락맨 및, 이탈리아인 디자이너와 건축가로 세계적 명성이 높은 알레한드로 만디니의 아트를 LA 미디어 작가 '머신아이즈'를 통해 비디오 아트 및 3D 픽셀 맵 콘텐츠를 제작하여 비디오 아트 콘텐츠를 롯데월드타워 영상파사드 라이트아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동 기획하여 한국에 소개하였다.

하종현(Ha Chong-Hyun, b.1935)

하종현은 한국 현대 추상미술의 대가로 현재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하종현 화백은 단색화를 통해 한국의 독특한 현대 추상미술을 세계에 알린 일등공신의 한 작가로 꼽힌다. 홍익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한 후 1964년부터 1974년까지 한국아방가르드협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실험미술을 한국에 소개하였으며, 초기 작품들은 비정형 회화 (Arte Informale)에 영향을 받았고 그후 기하학적 추상 (Geometric abstraction), 미니멀리즘의 성향을 가진, 작품을 하셨으나, 한국전쟁 이후 1970년대 초부터는 화백의 독특한 작품 기법, '배압법'을 개발하여, 석고, 철조망 또는 미국에서 식량 원조를 수송하는 데 사용되는 삼베와 같은 비전통적인 재료를 사용하였다. 그는 쌀봉지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대마 천을 사용해 왔으며, 캔버스 뒷면에 페인트를 바르고 직물을 관통하고 반대편에 도달할 때까지 밀어내는 것만으로도 페인트 브러시없이 페인트칠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그의 회화 개념은 "명상도구"이자 "신체 기능"을 이용한 행위로 묘사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제한된 색깔과 재료의 범위는 명상적 단순성과 서양 추상 표현주의에서 일반적으로 자아가 현재를 대체하는 "시각적 중립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합니다 하종현 화백은 1959년 홍익대학교 졸업 후 서울에서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다. 1990년~1994년 홍익대학교 예술대학의 학장을 지냈고, 2001년~2006년 서울립미술관 관장으로 재직했다. 작가는 2002년 부산시립미술관, 2003년 밀라노의 무디마 파운데이션 현대미술관, 2004년 경남도립미술관 등에서 개인전을 가진 바 있고, 2012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대규모 회고전과 2014년 뉴욕 소재 블럼 앤 포 갤러리에서 전시를 펼쳤다. 주요 소장처로는 뉴욕 현대미술관 (MoMA), 시카고 아트인스티튜트, 홍콩 M+ 시각예술 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삼성미술관 리움 등이 있다.

윤형근(Yun Hyong-Keun, b.1928-d.2007)

20세기 한국 추상미술의 대표작가 중 아티스트 故 윤형근 작가(1928-2007)는 동양과 서양의 예술사조와 시각적 전통을 초월해 그만의 독특한 추상적 기법으로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한국의 아티스트다. 아티스트 윤형근은 동서양 시각예술의 전통을 융합하고 끝내 초월한 독자적 추상 작업을 통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전통 선비 미학의 절정을 보인 추사의 예술세계에 뿌리를 두며 서구적 재료를 사용한 융합을 통해 현대성을 추구했던 윤 화백의 기품 있는 작품세계는 2018년 MMCA 회고전 및 2019년 베니스 포르투니 미술관(Palazzo Fortuny)에서의 순회전을 통해 그 가치의 진수를 세계 미술계에 확실히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터펜타인을 사용하여 색소를 희석시키고, 엄버와 울트라마린을 희석시켜 캔버스에 씻어내고 침투함으로써 빛과 어둠의 그라데이션을 정의하는 데 달성했습니다.

김형대(Kim Hyung-Dae, b.1936)

김형대는 현대미술의 제 1세대로서 우리나라 현대 미술의 선봉에서 젊음의 정열을 불태운 화가들 중의 한 사람이다. 김 화백은 1961년 비정형예술(Informel·앵포르멜) 계열의 작품으로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상을 수상했다. 추상미술로 국전에서 상을 받은 최초의 작가이기도 하다. 김형대 화백은 "한국 고유의 것을 찾아 이를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고민이었다. 삼원색을 바탕으로 작품의 빛이 내면으로부터 밖으로 비춰 나오는 새로운 기법으로 중첩된 색면과 두꺼운 물감으로 나타난 표면의 마티에르가 특징이다. 시간이 지나면 유연성이 없어 갈라지는 유화대신 자연스럽게 시대와 작업에 맞춰 아크릴 물감과 조개가루를 활용한 모델링 컴파운드(Modelling Compound)를 이용했다.

"추상화는 기본적인 것"이라며 "색의 아름다움, 색의 변화, 계절이 다 담겨있어,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추상회화가 발전할 수 있을 수밖에 없다" -화가 김형대

래리 벨(Larry Bell, b.1936)

래리 벨은 미국의 현대 미술가이자 조각가이다. 세계적 갤러리 하우스 앤 위스 (Hauser & Wirth) 소속 작가로 현대미술 요지에서 활발하게 전시를 열고, 휘트니 미술관 등 최고의 아트 기관과 협업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시작된 빛과 우주 운동의 주역으로 명성을 얻었다. Light and Space Movement는 기하학과 빛을 사용하여 관람자를 위한 지각적 경험을 만들어내는 박탈된 작품을 선보였다. 그는 그의 유리 상자와 대규모의 환상적 조각작품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그는 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과 구겐하임 재단의 그랜트 수혜자이며, 그의 작품들은 많은 주요 문화기관의 컬렉션이다. 뉴욕타임즈는 그의 작품을 미 동부의 미니멀리즘과 서부의 미니멀리즘이 결합된 작품이라고 평했다.

"내 작품에서 관찰되고 보아지는 시각적 메시지를 주는 것은 모두 (조각이 아니라) '빛' 그 자체입니다." -아티스트 래리 벨

헬렌 파슈지안(Helen Pashgian, b.1934)

빛을 담은 작가 헬렌 파슈지안은 대부분의 작품에 제목을 붙이지 않는다. 관람자들이 미리 결론을 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녀의 조각은 내부에 독특한 형태의 프리즘을 삼입해 관람자가 작품과 맺는 물리적 관계에 따라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관람자의 시각적 인지가 파슈지안의 조각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원래 파슈지안은 미술사를 전공해 학자의 길을 가고자 했다. 빛을 그리는 17세기 네덜란드 거장들을 주제로 박사 학위 논문을 쓰려던 그녀는 1960년대 초 예술 창작 쪽으로 관심을 돌렸고 산업 재료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에폭시와 레진 등을 이용하여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 데 테크닉을 발전시켰다. 산업 재료를 이용해 작품을 만들며 주조 기술을 실험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 레진으로 단단한 형태 속에 빛을 가둘 수 있게 됐다. 날것의 재료들을 이용해 빛을 품고 발산하는 신비로운 작품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의 작업은 관람자와 작품을 '관계적인 것'으로 만든다. 이는 벽에 거는 조각 작품에서도 잘 나타난다. 특정 위치에서만 볼 수 있는 요소들을 품고 있어, 관람자들은 움직여야만 이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더 보고자 노력하는 관람자들에게만 기회를 주는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파슈지안의 작업은, 우리에게 면밀히 보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성향을 따르라고 요청하는 듯하며, 혹여 놓치진 않았는지 계속 더 살펴보라고 권한다. 파슈지안의 구형(sphere) 작품에서도 비슷한 효과를 발견할 수 있다. 그는 반사하고 굴절하는 빛의 특성을 면밀히 연구해 색조들을 선택했다. 사포질로 반사광을 낸 이 구체들은 내부에 삼입한 형체를 통해 주변 환경의 이미지와 빛을 흡수하고 왜곡한다.

래디 존 딜(Laddie John Dill, b.1943)

Laddie John Dill은 재료와 매체에 대한 관심을 작품에 연결시키는 미국 작가이다. 그의 재료는 전통적인 물감 대신 모래알과 유리다. 그의 혁신적인 색소 시멘트, 유리 및 금속 그림은 더 큰 테마와 자연의 변화에 중점을 둔다. 그는 작품을 통해 자연의 더 깊은 주제를 표현하고 싶어한다. 그의 작품은 특정 개인 경험 순간보다는 움직임과 지속적인 주기와 더 관련이 있다. 그는 물리적인 풍경뿐만 아니라 지구의 지질 구조, 조석, 자연계에 대한 시간과 인간의 파괴적 또는 건설적인 영향을 탐구한다. 그의 작품에 사용하는 재료는 지구와 요소에 대해 거의 은유적이다. 시멘트, 유리 및 안료와 그가 이러한 물질을 처리하고 주소, 침식 및 염색하는 방법은 지질학적 변화와 지구의 시간, 계절 및 요소의 영향을 상징한다. 그의 작품에서 우리는 동양의 풍경화로 표현된 몰입적이고 우주적인 힘에 대한 감사를 볼 수 있다. 그는 전 세계에서 60개 이상의 개인전 및 150개 이상의 그룹전에서 그의 작품을 발표했다. 그의 작품들은 뉴욕현대미술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CA, 샌프란시스코 현대 미술관, 시카고 필립스 컬렉션과 같은 국내외 기관들의 영구적인 컬렉션에 있다. 그는 구겐하임 펠로우십과 두개(그림, 조각)의 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grants)의 수혜자이다.